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월화극 '닥터 챔프' 김소연

“하얀 가운 의사 꼭 해보고 싶었다”

검사 이어 이번엔 여의사
‘전문직’ 전문배우 되겠네



SBS 새 월화극 '닥터 챔프'로 4개월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온 배우 김소연이 "월화드라마라 경쟁드라마가 없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SBS 목동 사옥에서 열린 '닥터 챔프' 제작발표회에서 김소연은 "전작에서 시청률 경쟁을 심하게 겪은 터라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경쟁작이 없다는 것"이라며 웃었다.

김소연은 SBS 수목극 '검사 프린세스'를 할 당시 KBS 2TV '신데렐라 언니', MBC '개인의 취향'과 험난한 시청률 경쟁을 벌였다.

오는 27일부터 매주 월·화요일 밤 8시50분 방송되는 '닥터 챔프'는 동시간대 다른 지상파 방송사가 9시 뉴스를 편성해 직접적인 경쟁작은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열매가 제일 좋아했어요. 전에는 손예진('개인의 취향'), 문근영('신데렐라 언니') 얘기를 항상 들었는데 지금은 경쟁작이 없으니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웃음)"

함께 출연하는 임태웅은 "드라마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뉴스로 보고 싶은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어제 뉴스가 오늘 같아서 시청자가 뉴스 대신 우리 드라마를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은 이 드라마에서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선수들의 주치의 김연우 역을 맡아 선수들과 갈등을 겪으며 성숙한 의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역할이 너무 하고 싶었다"며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순풍산부인과'에서도 산부인과 의사 역할을 했는데 그때는 핫 핑크 가운이었어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위생복과 흰 가운을 입으니까 다른 전문직 의상보다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몰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김연우는 촉망받는 젊은 정형외과 의사였으나

스승의 의료사고를 발생해 병원에서 쫓겨나 태릉선수촌 주치의로 돌아간다. 능력 있는 의사지만 융통성이 없어서 인간관계에 좀 서툰 편이다.

김소연은 캐릭터에 대해 "완벽한 것 같지만 욕하기도 하는 등 2% 부족한 면이 있다"며 "다른 메디컬 드라마 속 의사와 달리 환자를 쉬게 하지 못하는 대신 잠시 아픈 걸 잊게 하고 부상을 방지해 준다는 점에서 색다르다"고 설명했다.

전작 '검사 프린세스'에서 검사 역할에 이어 전문직을 다시 연기하는 데 대해 "전문직이라서 어렵다고는 캐릭터를 다르게 표현하기가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처음 촬영할 때는 캐릭터 표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한 것 짝씩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어떡냐고 물어봤어요. 지금은 아예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필뉴스

“예능이든 연기든 노래든 내 안의 끼 다 보여줄 것”

그룹 '비스트' 이기광

식스팩의 근육질 몸매에 '깡찐다'고 느껴질 정도의 끼, 시원시원한 춤. 최근 남자 아이돌이 내세우는 무기들은 10대나 누나 혹은 아줌마 팬들을 열광시키는 매력들이다. 이런 가운데 그룹 '비스트'의 맴보 이기광(20)이 차지하는 자리는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새롭다. '아저씨' MC들과 호흡을 맞추며 서글서글하면서도 간죽이는 모습으로 아저씨 팬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지붕뚫고 하이킥'의 '세호' 역으로 팬들의 연정과 상관 없이 인지도를 얻었던 그는 예능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뜨거운 형제들(뜨형)과 토크쇼 '김승우의 승승장구(승승장구)'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다.

'뜨형'의 아바타 소개팅에서는 김구라 못지 않은 '독살'을 쏟아내고 '승승장구'에서는 대선배 김승우에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아저씨 MC들과 밋밋 않은 호흡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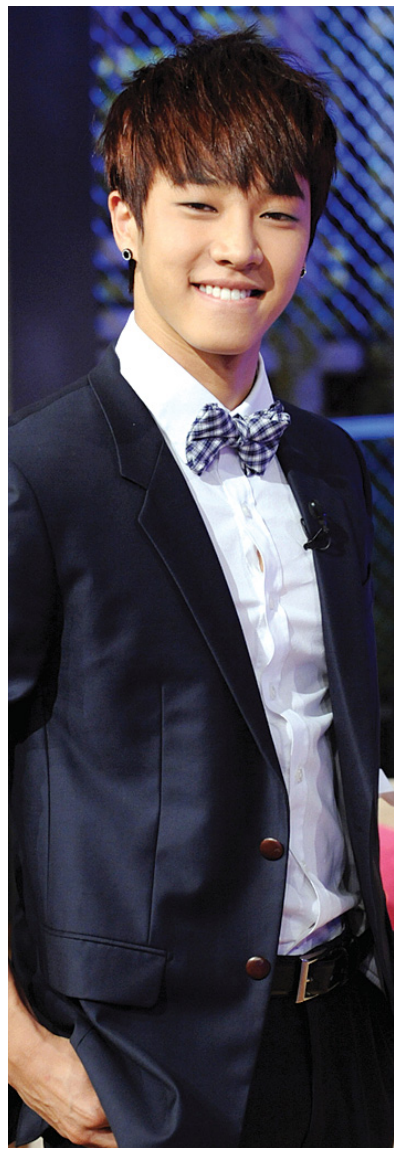
"어려서부터 장난기가 많았지만 남들 앞에 나서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녹화에 들어가니 높게만 느껴지던 형님들이 저 같은 동생들에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편하게 제 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거죠."

'뜨형'에서 대선배를 앞의 당당한 후배 느낌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당돌하게 할 각오는 없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아이돌로서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첫 방송에서 제가 어색해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니 이 시간을 웃으면서 재미있게 보내고 싶을 시청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순간만큼은 배우도, 가수도 아닌 예능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보기로 했죠."

아이돌 출신으로 '지붕뚫고 하이킥'을 경험하고 현재는 예능프로그램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는 그룹 '썬썬리 꼬꼬' 출신으로 영화와 예능을 드러내며 활발히 활동 중인 탁재훈과 활동 방향에서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인지 어떤 '형님'이 가장 잘해주느냐는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재훈이 형님"이라고 답했다.

"'뜨형'에서 마냥 재미있고 웃긴 모습을 보여주면 됐다면 '승승장구'에서는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끌어내면서도 그 틈에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내야 하잖아요. 아직은 적응을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슬픈 사연, 즐거운 사연 들어 가면서 타이밍 봐 가면서 웃기기도 하고... 이전과 다른 장르의 예능을 배우고 있어 재미있어요."



을 보여주면 됐다면 '승승장구'에서는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끌어내면서도 그 틈에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내야 하잖아요. 아직은 적응을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슬픈 사연, 즐거운 사연 들어 가면서 타이밍 봐 가면서 웃기기도 하고... 이전과 다른 장르의 예능을 배우고 있어 재미있어요."

이기광은 중학교 3학년 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며 연예인의 꿈을 키워왔다. 그는 작년 초 솔로로 데뷔한 뒤 '지붕뚫고 하이킥'의 연기 활동과 비스트 1집 활동을 병행하며 본격적으로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예능이든, 연기든, 노래든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는 "비스트 3집을 통해 가수로서 카리스마 있고 섹시한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스트의 새 음반은 이달 말 발매될 계획이다. /연필뉴스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새 MC에 김석훈 발탁

배우 김석훈(38)이 SBS TV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의 새 MC로 발탁됐다.

SBS는 김석훈이 김C의 바통을 이어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의 MC로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는 화제의 사건,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으로 MC가 내레이션도 맡는다.

김석훈은 "내레이션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프로그램을 본 후 근래에 보기 힘든 진정성을 느껴 MC를 맡게됐다"고 말했다.

건강한 맛, 고품격 메뉴,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 * 홀 : 연인, 친구, 가족 (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직장회식, 계모임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편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 - 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편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셔야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문의 0621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 각종 모임 및 행사 예약(500석 완비)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출장뷔페 전문



아이엘리시아